

제2부 : 특정 집단에서의 재난 상황과 정신과적 문제

대한불안장애학회
동자연수교육
2004. 9
인문아이트호텔

교통사고와 정신장애

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교실
이 경 옥

교통사고의 현황

- 2002년
 - 교통사고 건수 : 총 23만 953건
 - 사망자 수 : 7090명
-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
 - 한국 5.5명
 - 일본 1.3명
 - 영국 1.2명
 - 미국 1.9명

교통사고의 현황

- 주행 거리 10억 km당 사망자 수
 - 한국 29.6명
 - 영국 7.5명
 - 미국 9.4명
 - 일본 13.4명

교통사고의 문제

- 인명피해
 - 사상자
 - 중증 후유장애인
 - 피해자의 유자녀(幼子女)
- 물질적 피해
- 정신적 피해
- 사회경제적 비용

의사의 역할

- 치료의학 : 질병과 손상의 진단과 치료
- 재활의학 : 치료 후 남는 장애의 최소화
- 예방의학 : 질병과 손상의 예방
- 배상의학 : 손해와 관련된 의학적 사항의 해결

교통사고 이후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

- 마비, 해리 상태
- 쓰러짐 상태
- 불안, 공포, 과각성 반응
- 사고의 재경험
- 수면 장애
- 우울반응
- 조증
- 인지 기능의 장애
- 알코올이나 그 다른 약물 사용의 문제

병원 응급실로 이송 시 주의점

- 반복적 안심 : “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. 병원에 도착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세요”
- 가족과 친지 접촉 유지
- 가족에게 연락할 때도 사고가 났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다 이차적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천천히 친절하게 해야 한다. 그리고 “오실 때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하세요”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.

입원 중의 주의점

- 신체적 고통 경감: 신체적 손상 및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
- 친절하고 편안한 병동 환경을 유지
- 신뢰관계 형성
- 심리적 의미 파악
 - 의존심 증가, 무력감
 - 퇴행상태

입원 중의 주의점

- 지지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
- 치료진에게 분노 표현: 가족 친지가 저지른 사고로 상처를 입은 경우
- 죄책감, 자살; 자신이 저지를 사고로 가족이나 친지가 사망하였을 경우

퇴원후의 문제점

- 1) 신체손상의 회복 및 후유증의 문제
- 외상 자체의 기능 손상을 파악
 - 외상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 예측
 - 손상된 기능이 본인의 일상 활동이나 흥미, 관심사, 직업 활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
 - 신체 손상에 대해 환자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평가

퇴원후의 문제점

- 2) 경제적 문제
- 치료 비용
 - 보상과 배상 문제에 집착

퇴원후의 문제점

- 3) 직업 학업으로의 복귀
- 적절한 시기 선택이 중요
 - 늦은 복귀: 심리적 부담감
 - 지나치게 빠른 사회적 복귀: 적절한 회복을 방해
 - 퇴원 시점이 되기 전에 환자와 같이 퇴원 후 직업이나 학업으로 복귀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대책을 탐구

퇴원후의 문제점

4) 운전 등의 문제

- 적절한 반응
 - 지나친 반응

퇴원후의 문제점

5) 가족관계의 문제

- 가족의 사망 또는 신체적 손상
 - 가족간의 죄책감, 분노
 - 경제적 역할의 변동
 - 가족 역동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가족간의 문제를 퇴원하기 전에 미리 다루어 주는 것이 좋다.

정신과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

정신감정에 있어서의 문제들

- 증상을 평가하기가 어렵다.
 - 증상의 다양성
 - 증상의 주관성
 - 증상의 가변성

정신감정에 있어서의 문제들

-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.
-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판정기준자체가 진부하다
 - Earl D. McBride : 1936
 - AMA 장해판정기준 : 1958-1970년
- 두뇌 손상의 예후나 사회적 기능회복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.

결 론

-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
- 교통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회복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까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와 접근 체계가 필요 - 초기 정신과적 개입
- 보상 배상 위주의 행정적인 대처가 아닌 환자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체계가 필요
- 적절한 평가 및 진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
- 정신과적 장애에 대한 판정 기준 마련
